

역대 최고 지선 사전투표의 의미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날아든 '사전투표율 23.51%'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하다.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이 이미 주권을 행사했다는 뜻이자, 4년 전 지방선거(20.62%)를 훌쩍 뛰어넘은 역대 최고 기록이기 때문이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고 '동네 선거' 정도로 평가받던 지방선거에서 왜 이토록 뜨거운 열기가 분출된 것일까.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이 숫자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느라 바쁘다. 한쪽은 야당을 향한 '내란 심판의지'의 발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으려는 '국정 심판론'과 지지층 결집의 증거라며 승리를 자신한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면 여야 지지층의 '사활을 건 총결집'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 공학적 유풍리를 떠나, 이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전투표의 생활화'를 넘어선 능동적 주권 행사 양식의 정착이다. 과거 사전투표가 단순히 '본투표 날 쉬기 위해 미리 하는 투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본투표의 연장선이자 하나의 거대한 '투표 주간(Vote Week)'으로 자리 잡았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유연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치적 효능감의 심화와 대결 국면에 대한 민심의 조기 응답이다. 비상계엄의 파장과 탄핵 정국 등 최근 몇 년간 격변해 온 대한민국 정치 지형 속에서 유권자들은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강력한 학습 효과를 거뒀다. 이번 사전투표율 최고치 경신은 진보와 보수, 여야 아를 막론하고 우리 동네의 삶을 바꿀 리더를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사라도 빨리 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 국면이 유권자들을 방관자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판과 지지의 장으로 일찍 불려낸 것이다.

셋째, 중앙 정치의 그늘에 가려진 '지역 소

멸과 삶의 위기'에 대한 아우성이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라 내 집 앞의 가로등, 우리 아이의 교육, 지역 경제의 생존을 결정하는 무대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음을 방증한다. 여야가 중앙 무대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의 해법을 찾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데 대한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3.51%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결코 정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이제 시선은 6월 3일 본투표로 향한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단순히 투표 분산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전체 투표율 견인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심의 거대한 도도함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만한 평가대신 민심의 엄중한 경고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때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임상·R&D·투자' 삼각 글로벌 프로듀서



이지 청 하
(유통&라이프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 공식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 글로벌 비파마에 넘기고 로열티를 창출하는 방식은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리스크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일궈낸 제조업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바이오 위상을 다진 거대한 축임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은 캐시카우와 지식 재산권(IP)을 활용해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전략 사령탑이 되는 추세다. '글로벌 임상·R&D·투자'를 유기적으로 엮는 신(新) 삼

각 구조를 발판 삼아, 변방의 공급 기지를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로듀서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 지분을 글로벌 비파마 일라이 릴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약사가 해외 바이오벤처를 육성해 글로벌 비파마에 매각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실질적 사례다.

한미약품은 중국, 북미 등으로 직접 진출해 있다. 한미약품의 중국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0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알짜 캐시카우로 성장해 있다. 북미 회사 HS 노스 아메리카를 통해서도 캐나다 바이오텍 애플츠 바이오사이언스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회사인 메타비아에서 비만 치료제 등을 개발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한다. 전통 제약사는 물론 HL

B의 경우에도 일찍이 미국 회사인 엘레바와 베리스모를 확보해 각각을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에피소홀딩스 역시 글로벌 R&D 거점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 100% 출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R&D 센터를 설립했다. 바이오 첨단 기술산업단지인 명문 대학들이 인접한 현지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이뤄낸 기술 수출 전략과 제조 역량이라는 자양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들이다. 임상과 R&D, 과감한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삼각 구도가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거대 규모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판도를 신약, 임상, 공급 등 다각도에서 설계하는 프로듀서로 도약하길 바란다.

/mlee236@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일 (음 4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손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0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72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84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 49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운대가 그리 좋지 못하니 매사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73년생**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85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5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4년생** 거래가 성사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문서에 인연이 있으니 희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 51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63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피곤합니다. **75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87년생** 친구나 지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 52년생**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64년생**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76년생** 마음이 지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88년생**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53년생** 다치거나 분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5년생** 여행이나 외출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77년생**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필요합니다. **89년생** 점점 운기가 좋아지니 계속 노력하세요.
-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계망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북쪽 방향이 길하니 이동이나 선택에 참고하세요. **90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합니다.
- 5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잘 풀립니다. **67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79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9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려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 58년생** 주위와 잘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82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길한 하루입니다. **94년생** 친구와 연락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희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물극필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무척이나 익숙한 속담이다. 뜻은 단순하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저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라 삶에 희망을 주는 말이다.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꿰뚫어 보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의 인생살이는 괴로움과 기쁨의 순환이다. 괴롭기만 한 인생이 없고 기쁘기만 한 인생도 없다. 어느 인생살이든 괴로움과 기쁨을 모두 맛보면서 살아간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변화이다. 괴로움과 기쁨이 어떻게 변화하고 찾아오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물극필반(物極必反)으로 명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흥망성쇠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세상의 어떤 것이든 흥하는 때가 있으면 그와 정반대로 망하는 때도 있고, 번영을 이루었다가 쇠락하기도 한다. 사업을 벌여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면 운이 다했다고 여긴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하나의 운이 다했다면 또 다른 운이 다가오는 시작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을 타고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쇠락할 뿐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은 삶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구나 괴로운 일을 겪는다. 돈 문제나 직장에서의 괴로움이 평생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또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앞길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이 괴로움의 끝에 달한 시기일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따라 꾸준히 견디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꽃길에 걸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1			7	3	
		2		9	1	6	
6	8	4	3			7	9
		1			4		
3	4			1	8	6	9
9		2	5	3			
	8	9			4	3	2

1	8		9		2	3	5
							1
		5		3	1		9
	2	3	4	5			
							9
9				1	7	6	2
	3		8	2		4	
	6						
5	4	2		7		9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6	5	4	3	2	1
2	1	9	8	7	6	5	4
1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